

### 벤처기업 수익성 향상

지난해 국내 벤처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면서 고용사정도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. 중소기업청(청장 김성진)이 10월 1일 발표한 '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'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벤처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4.1%, 영업이익률은 7.2%를 기록해 전년도(16.4%, 6.3%)에 비해 좋아졌다. 제조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5.3%로 같은 업종의 대기업(6.6%), 중소기업(5.4%)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. 제조 벤처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.3%로 역시 대기업(8.2%), 중소기업(4.6%)에 비해 높았다.

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고용인원수도 늘었다. 지난해 말 현재 벤처기업당 정규직 평균 종업원수는 39.1명으로 전년도 36.2명에 비해 약 3명 증가, 4602개 응답 기업수를 감안할 때 지난 한해 동안 약 1만3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. 주력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핵심 기술은 정보기술(IT)이라고 답한 기업이 54.2%로 전년도보다 소폭 늘었고 바이오기술과 콘텐츠라고 응답한 기업비중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.

###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'모태펀드' 내년 허용

벤처기업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전담할 '모태펀드(fund of fund)'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. 국내에서는 그 동안 모태펀드 출자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출자를 꺼렸다.

열린우리당(당의장 이부영)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'벤처기업육성특별법개정안'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,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기로 했다.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'모태펀드'를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 전문기관만 모태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. 또 벤처전문 모태펀드가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, 운영주체도 창업투자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사 등 전문투자기관으로 명시했다.

이에 따라 앞으로 생길 벤처전문 모태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이를 다시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는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하게 된다.

### 서울중기청, 사이버 중소·벤처투자마트 개설

서울지방중소기업청(청장 이보원)은 투자자와 중소기업이 사이버상에서 투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'사이버 중소·벤처투자마트'를 오는 17일 개설한다. 이 사이트는 투자기관정보, 우수 중소·벤처기업 정보, 벤처투자 및 M&A관련 최근 정보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기업들은 '메일 통보서비스'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우수기술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투자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
서울중기청은 "기존 오프라인 투자마트는 참여 업체수가 제한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,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하게 됐다"고 설명했다.